潘 대권 시사…제3지대 형성 본격화 되나

측근 "특정 정당 안간다…많은 분 만나볼 것" 손학규·김종인·국민의당·바른정당 연대 관심

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 총장이 12일 귀국하면서 정치권에 제3지 대 형성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일단 반 전 총장이 가까운 시일 내 특정 정당과 손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서 독자세력화 후에 생각을 공유하는 세 력과 자연스런 연대, 즉 제 3지대를 구체 화할 가능성이 크다.

반 전 총장의 '실무 준비팀'에 소속된 이 상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"반 전 총장이 특정 정당을 지금 선택할 가 능성은 없어 보인다"며 "주요 정치 지도 자들이 계시는데, 당분간 그분들과 만나 서 어떤 연대를 도모하는 것 같지도 않다" 고 전망했다.

또 "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이탈한 상황 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 들어갈 가능성 은 크지 않다"며 "(반 전 총장) 맹비판을 많 이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"이라고 말했다.

이 전 의원은 나아가 "서로 생각을 공유 하는 분들과 정치적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 성될 것"이라고 예상했다. 아울러 "국민 의당도 반 전 총장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 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,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지 않느냐"고 덧붙였다.

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과 정치적 연대 가 가능한 인사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, 정 당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을 꼽고 있다. 이 세력이 연대할 경우 대선판을 흔 들 수 있는 이른바 '제 3지대' '빅텐트'가

이 같은 배경에서 손전 대표와 김 전 대 표가 반 전 총장 귀국 직전 나란히 개헌론 을 설파하며 '제3지대' 띄우기에 나선 것 도 주목된다.

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태 규 의원이 주최한 '대학생 리더십 아카데 미'에 참석한 두 사람은 모두 반 전 총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눈길을 끌

손전 대표는 "반전 총장과 만날 일정이 있나"라는 질문에 "만나게 되겠지"라면 서,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"과거의 정 치, 보수적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별개의 문제이고 새로운 정치에 관심을 두고 그쪽 으로 뭘 해보겠다면 (어떻게 될지) 모를 일"이라고 말했다.

손 전 대표는 또 "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2009년 헌법개정 자문위가 만들어 놓은 안이 있다. 이 중에 선택하면 된다"면서 "핵심은 대통령의 무 제한적 권력, 특권, 패권을 제거하는 것" 이라고 말했다.

김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"반 전 총장 에게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이냐"는 질문에 "(반 전 총장이) 보자고 그러는데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지 뭐…"라고 말했다.

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 대표와 만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.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"반 전 총장 측은 자신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2년 반 전부터 꾸준히 접촉해 왔었다"며 "반 전 총장이 먼저 호남과 충 청의 정치적 연합인 '뉴DJP 연합'을 제안 했었다"고 말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야 3당, 개혁입법에 '민심 담기'

시민단체 의견수렴…"다음달 안 처리"

더불어민주당·국민의당·정의당 야 3 당이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 의견수렴에 나서며 입법작업에 시동을

야권은 '촛불민심'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, 1·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개혁입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.

야 3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'박 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(퇴진행동)' 과 함께 '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'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.

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서 "광장에서 드러난 촛불민심의 변화 와 개혁 요구를 국회 내 제도변화로 담 아내는 게 우리의 임무"라면서 "민주당 개혁입법 추진단이 꼽은 22개 개혁 법안 을 1·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 린다"고 밝혔다.

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"민주 당과 저희 당의 개혁입법과제에 크게 차이가 없다"면서 "여야 4당 원내대표 모임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. 특히 바 른정당이 도와줘야 아무래도 개혁입법 이 쉽게 이뤄질 것"이라고 말했다.

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"광장에 서 나온 '이게 나라냐'는 물음에 담긴 요 구, 나라를 나라답게 다시 세워내야 할 과제들이 놓여있다. 임시국회 중에 나 라를 바로잡아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퇴진행동이 제안한 '6대 긴급현안'은 ▲역사 국정교과서 저지 ▲세월호 진상 규명 ▲백남기 농민 특검법 ▲사드 배치 철회 ▲성과연봉제 중단 ▲언론장악・ 방송법 개정 등이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문재인 2주 연속 지지율 1위

리얼미터…27.9%로 반기문과 7.6% 격차, 호남 40.6%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오름세를 타며 2주 연 속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

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9~11일 전국의 유권자 1511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문 전 대표 의 지지도는 27.9%로, 전주보다 1.1%포 인트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.

문 전 대표는 대구·경북을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선두를 유지했고, 특히 호 남에서는 40.6%로 2015년 4월 4주차 (36.8%) 이래 약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

를 경신했다.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 이 40% 선을 넘은 것은 리얼미터 조사 이래 처음이다.

12일 귀국한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.3%,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11. 3%,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7. 1%를 각각 기록했다. 이어 민주당 안희 정 충남지사(5.2%), 같은 당 박원순 서 울시장(4.3%), 바른정당 오세훈 전 서울 시장(3.2%),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(2. 9%),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(2.4%)이 뒤 를 이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/연합뉴스

한·중 한류콘텐츠 산업 현장 간담회

전당대회로 분위기 쇄신…반전 노리는 국민의당

박지원 독주…'당 활로 모색' 安-호남중진 의견 조율

국민의당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 회(15일)를 기점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.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됐던 '4·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'에 연루된 당 관계 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새로운

지도부 선출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기일

文, 한류콘텐츠 간담회 참석

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. 일단, 국민의당 당권 경쟁에 나선 문병 호 전 전략홍보본부장, 손금주 전 수석대 변인, 황주홍 의원, 김영환 전 사무총장,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(기호순) 후 보 5인은 12일 지상파 3사 공동 토론회에 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재도약해

야 한다고 주장했다. 특히,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주창하는 '자강론'을 우선 강조하 며 막판 당원들의 표심 확보에 나섰다. 하 지만 제3지대 연대론에 거부 입장을 보이 진 않으면서 여지를 남겼다. 리베이트 의 혹으로 기소된 박선숙·김수민 의원 등이 전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환영의 뜻도 밝혔다.

전반적인 판세는 박지원 의원이 독주 구 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이 막판 역전을 기대하며 표심을 다지고 있

하지만, 대표와 최고위원 등 5명을 선출 하는 전대에 5명의 후보가 도전하면서 흥 행 등 컨벤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.

이 가운데 김영환 전 의원을 제외하고

박지원, 황주홍, 손금주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4명이 전남 출신이다. 주승용 원 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원장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도부 대부분이 호남 출신으로 꾸 려질 전망이다.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'한·중 한류콘텐츠 산업 현장 간담회'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

한편, 국민의당 자강론과 제3지대 연대 론 등 대선 전략을 두고 다소 엇박자를 보 이던 안 전 대표와 호남 중진의원도 의견 조율이 돼 가는 분위기다.

안 전 대표는 12일 김동철 비상대책위원 장, 주승용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당의 진로 등을 논의했다.

국민의당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 부가 꾸려지면 제2의 창당을 선언하고, 다 음 주 초 끝장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마 련할 예정이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민주당 "국민 검증" 국민의당 "지켜보자"

'반기문 귀국' 2야 반응

더불어민주당은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"진정 나라 위해 몸 을 불사르겠다면 철저한 국민 검증에 임해 야 한다"며 대대적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.

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반 전 총장의 귀국 기자회견에 대해 "자신에 대한 많은 궁금 증과 의혹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대신 '진정성을 짓밟는 행태는 용 납할 수 없다'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" 고 지적했다.

국민의당은 반 전 총장이 귀국 기자회견 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"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"이 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. /연합뉴스

법률 경매

경매 추천 물건

㈜ 대신경매

남구 월산동 (2층 상가 사무실)

▶감정가 4억3천 → 최저가 2억4천

■ 나주 송월동 (복합 상가건물)

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

총 룸 30개 (달방수익 1천만 예상)

▶감정가 9억5천 → 최저가 5억3천

동구 수기동 (2층 상가건물)

금남로 4가, 5가 역 2분거리

4차선도로접 / 2층 상가건물 ▶감정가 3억 → 최저가 2억1천

수영장, 예식장, 사우나, 찜질방, 헬스장

농성역 5분 / 6차선도로 접

넓은 평수 / 저렴한 가격

토8,474평 건 2,563평

▶감정가 160억 → 58억

토 91평 건 340평

토 50평, 건 60평

광주역 1분 (코너자리)

■ 북구 중흥동 (숙박시설)

나주혁신도시 5분!!!

토 21평, 건 95평

새누리 '친박 인적 청산' 본격화

오늘부터 윤리위 가동…서청원·최경환·윤상현 거취 관심

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12일 "내일부터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겠다" 고 친박(친박근혜)계 핵심인사들에 대 한 인적 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

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주 요당직자회의에서 윤리위 구성안을 의 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.

당내에서는 인 위원장이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윤상 현 의원 등을 인적청산 대상자로 염두에 두고 있으나, 이들이 자진탈당을 거부 함에 따라 윤리위를 구성해 출당 조치 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.

인 위원장이 지난 9일 비대위원을 구

성한 데 이어 이날 윤리위 가동 의사까지 밝힌 것은 본격적인 인적청산 작업에 나 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.

인 위원장은 전날 당 대토론회에서 친 박계인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탈당계를 반려하겠다고 했다가 김문수 비대위원 등의 반대로 이를 번복한 것 과 관련,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.

이와 관련해 전날 토론회 직후 인 위 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이 참석한 만 찬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탈당계 반려 가 어렵고, 지금은 화합보다는 인적청 산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 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. /연합뉴스

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

북구 오룡동 (첨단삼성전자 정문 앞) 메가박스, 정부합동청사 1분

(본사건물, 연구실, 기숙사, 물류센타 적합 / 고속도로 진입 5분)

토지 500평, 건물 904평

★ 감정가 **55억** 매 가 38억

(※대출 27억 / 보 6억 월 3,000만)

첨단 사무실 임대

보 1,000만 월 40만 (투룸형) (주차 1대 가능) (전세 7천 월 5만원) (전용 12평, 분양평수 16평)

010-7384-7800

상가 매매 전문

토 97평 건 145평 / 1층 (골프매장) 2층~3층(상가) ▶매가 16억 8천 (융 5억) 보 1억 월 700만

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

- ② 노대지구 (3층) 대단위 아파트 (코너자리) 토 251평 건 431평 1층 (식당/미용실) 2층 (식당/상가) 3층 (오피스텔 - 13개) (보1억6천 월 1천300만) ▶매가 27억
- ③ 월산동 (3층)상가 매매 (농성역 / 힐스테이트 5분) 토 132평 건 404평 1층 (은행) 2층~3층(상가) 4층~5층(독서실) 6층(주택) ▶ 매가 22억
- ④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(천변로 전망 최고) (올리모델링 완비) (주차완비) 45평 보 1억 월 60만 ▶ 매가 1억4천만 (융5천)
- ⑤ 상무지구 오피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(19평) 보 500만 월 40만 (융 2천4백만) ▶ 매매 6천9백만
-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/ 전원주택 최고 위치
- ▶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
- 6층 (23평) 롯데마트앞, 상무나이트옆, 월세 45만 (융 1천 6백만)
- ▶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원룸 (오피스텔형)
- 보증금 200만 월 30만 (융 1천) ▶ 매가 3천 5백만 (전세값으로 내집마련)

2층 (11평)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,

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(15평) 12층 - 전망 좋음, 주변 골프장, 아파트 밀집지역 ▶매가 3천 5백만

010-6670-9800

직원 모집

부동산, 경매 관심 있으신분

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십니다.

(공인중개사 환영)

첨단지구 식당임대

◈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!!

>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

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

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

-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
- * 평수 15평
- ◈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
- ★ 보 2천 월 60만
- **10-7384-7800** 010-6670-9800

평택 투자

대한민국 최고의 투자



브레인시티/평택항 개항/미군부대 이전

☆ 평택 매주 출발 ☆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.

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!! 송탄사거리 1분 !!!

- 평수 1,610평 총 7필지분할
- (토목공사 완료) ● 최고 입지 조건
- (개발시 순수익 5억!!) ※1필지 200평 → 1억 투자시 가능

☎062−511−7800 010-6832-9700